일방적 천주교 성역화, '민중사'도 지운다

주목! 불교 논문

천주교 성지에 가려진 내포지방 민중사

현대불교신문은 격주로 법회 현장의 법문과 불자들이 주목해서 읽을 만한 논문들을 지면에 소개합니다. '주목! 불교 논문'에서 소개할 첫 번째 논문은 7월 2일 열린 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 발표된 '천주교 성지에 가려진 내포지방 민중사(김학로)'입니다. 천주교 성지 조성 문제는 단순히 불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학농민운동이나 다른 민족종교와도 연계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천주교가 성역화가 복합역사공간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한 '천주교 성지에 가려진 내포지방 민중사' 중 일부를 발췌 · 정리했습니다.

정리=신중일 기자



해미읍성 전경. 내포동학농민운동의 중심지였지만, 이는 조명되지 못하고 천주교의 성지로만 알려지고 있다.

홍주읍성과 내포동학농민혁명

충남에는 천주교 순례길이 140.5km에 달한다. 천주교와 관련된 성역화된 성지로 해미순교성지, 솔뫼성지, 합덕성당, 신리성지, 여사울성지, 갈뫼못성지와 해미국제성지 디지털역사체험관, 여사울 복합문화센터, 충청수영성 등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 중 해미순교성지는 2020년 교황청이 해미국제성지로 승인한 국내 유일의 단일성지이다.

천주교가 성지로 성역화하려는 곳으로 홍주읍성이 있다. 홍주읍성은 병인박해 때 많은 천주교인이 갖은 고초를 겪거나 희생된 곳이다. 홍주읍성에서 천주교인이 희생되었던 원인은 병인박해 시기 내포지방에는 많은 천주교 신자가 있었던 점과 홍주가 내포지방 행정의 중심이었던 점 때문에 당시 내포 일대에서 잡힌 천주교인을 홍주읍성으로 이송해 처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박해받은 천주교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많은 천주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많은 천주교인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천주교는 홍주읍성과 홍주읍성 일대를 천주교 성지로 삼고 성역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홍주의 위상은 공주, 청주, 충주와 더불어 목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으로 충청도의 주요한 군현의 하나였고 홍주읍성은 홍주목의 행정치소였다. 홍주읍성의 축조 시기는 기록이 없어서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이 빈번해지자 해안에 접한 홍주에도 평지성인 읍성이 설치되었는데 조선 세종 때에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곽 축조를 했고 문종 1년(1451)에 새로 고쳐 쌓았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성의 크기는 둘레가 4,856척(약 1.5㎞), 높이는 11척(약 3.3m)이며 문은 4개가 있었고, 여장·적대 등의 여러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안에는 우물 2개가 있었다. 근대시기 홍주는 다양한 정치 사회적인 문제의 격전장이 될 수밖에 없어 다양한 사건과 사태가 홍주읍성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주교인에 대한 병인박해였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홍주성 전투와 의병에 의한 홍주읍성 점령을 들 수 있다.

동학은 1880년대 초부터 내포지방에 크게 확산하였는데 조선 조정은 내포의 호서를 두고 호남과 더불어 양호지방이 동학으로 뒤덮였다고 우려했다. 내포지방의 동학농민혁명이 본격화된 것은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 내포에서 시작되면서부터였다. 1894년 10월 1일 태안에서 시작된 내포지방의 동학 기포는 서산, 해미, 면천, 당진, 온양, 아산, 신창, 예산, 대흥을 거쳐 홍주에 이르렀다.

내포의 동학농민군은 태안군수 신백희와 서산군수 박정기를 효수하고 해미읍성과 오천 충청수영의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조선 토병으로는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로 내포의 동학농민군은 면천 승전목 전투에서 일본군 후비보병 19대대와 정규 조선 경군의 혼성부대를 물리쳤고, 예산 신례원 전투에서는 홍주목사 이승우가 이끄는 홍주관군을 크게 무찔렀다.

신례원 관작리 전투는 1894년 10월 26일 시작되었다. 관작리 벌판에서 서로 대포를 쏘며 시작된 전투는 시작하기도 전에 승패가 결정된 것과 같았다. 면천 승전목 전투에서 승리해 사기충천했던 내포지방 동학농민군은 억지로 끌려 나왔다 싶은 홍주관군을 일방적으로 몰아 붙였다. 관작리 전투에서 홍주관군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홍주성으로 후퇴했다. 관작리 전투에서 패한 홍주관군의 피해는 예상보다 컸다. 특히 홍주관군의 구심 노릇을 하던 중군장 김병돈과 영관 이창욱, 주홍섭·창섭 형제 등이 함께 죽임을 당했다. 관작리 전투에서 참패당한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지 홍주성은 두려움에 떨었고, 뒤늦게 출동하다 만난 일본군도 함께 가서 공격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로 다투어 도망치기에 바빴다.

충남 지역 천주교 성지길만 140km
해미읍성, 홍주읍성 천주교 성지화
두 곳 모두 내포동학농민운동 중심
과도한 성지화에 민중사 망각 위기

내포지방 동학농민군이 홍주성에 몰려든 것은 1894년 10월 28일의 일이다. 신례원 관작리 전투에서 승리한 농민군은 덕산 역촌에서 유숙하였다. 덕산에서 홍주성까지는 30리 길이다.

홍주성을 에워싼 농민군은 어떻게 함락시킬 것인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열흘쯤 에워싸면 식량이 떨어져 스스로 걸어 나올 것이라고 했고, 한쪽에서는 바로 공격한다면 하루 이내에 함락시킬 수 있다고 했다. 홍주성 전투는 28일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홍주성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 때문에 한 때 홍주성 동문인 조양문 앞까지 진출했던 농민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틀간 계속된 전투에서 농민군은 사상자만 내고 후퇴하였는데 성 아래에서 죽은 동학군이 대략 600~700명이 되었다고 한다.

홍주성 전투가 끝난 뒤 홍주성 일대는 그야말로 살육의 현장이었다. 홍주성 전투가 끝난 뒤 홍주성을 구하기 위해 파견되어 온 도순무영 장위영 영관 우선봉장 이두황은 〈양호우선봉일기〉에서 홍주성의 참상을 이렇게 적었다.

"묘시에 홍주에서 길을 떠나 군사를 이끌고 홍주성동문으로 나가니, 좌우에 있는 민가가 다 불타 버리고 남은 집이 없었다. 보기에 참혹한지라 길가는 사람에게 물어 보니 '지난달 28일에 동도가 성을 포위하고 접전할 때에 그 무리들이 불을 질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00여 보를 더 걸어 나가니 적의 시체가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었고, 숲 덤불에는 송장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해미읍성과 동학농민혁명

해미면으로 말하자면 지금은 서산시에 속한 작은 면이지만 1914년 이전에는 해미현이었다. 해미읍성은 해미현의 치소로 천주교가 성지로 생각하고 성역화하려는 곳이다. 해미면에는 해미읍성뿐 아니라 천주교 박해시기 많은 천주교인이 박해를 당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 천주교 입장에서는 중요한 성지로 생각하고 있다. 천주교 박해 당시 해미읍성은 호서우영이 있었던 곳으로 내포지방 천주교 신자 다수는 해미읍성으로 이송되어 해미읍성 주변에서 처형됐다고 한다. 해미에서 천주교인이 처형된 곳은 해미읍성 옥사, 황무실 성지, 생매장터 진둠벙, 해미 서문 밖 순교지, 여숫골 등이다. 이 모두에 대해 천주교회에서는 성지로 삼고 성역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천주교회가 해미읍성에 대해서도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이다.

해미읍성에 있는 옥사와 옥사 앞에 있는 회화나무에 대해 천주교회는 성역화하는 데 주력하고있다. 안내판에는 해미읍성 옥사가 천주교인을 박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이 역시 서산시청이 천주교회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안내문을 만들어 게재했을 것이지만 해미읍성 옥사에는 천주교인뿐 아니라 수많은 죄수가 갇혀 있었던 옥사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해미읍성은 천주교만의 역사적 공간이 될 수 없다. 해미읍성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이순신 장군이 초급 무관 시절 근무했던 곳이기도 하고,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내포의 동학농민군이 점령하여 무장하는 등 장기간 주둔하며 보급기지로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다. 또한 홍주성 전투에서 패한 이후 해미읍성은 패전한 동학농민군이 재기를 준비했던 곳으로 토벌군인 도순무영 우선봉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과 일본군에 의해 무참히 살육당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내포동학농민군이 해미읍성을 점령한 것은 1894년 10월 2일으로 점령은 홍주성 전투가 끝난 1894년 11월까지 이어졌다. 홍주성 전투에서 크게 패한 내포동학농민군은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서산과 태안, 해미, 면천, 당진의 동학농민군은 해미읍성으로 후퇴하였다. 해미읍성에서 전열을 정비한 후 다시 한 번 재기를 노린 것이다.

해미성에서 홍주성을 다시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군과 일본군, 유회군은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는데 전력을 집중했다. 특히 인천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의 육군 대위 야마무라(山村忠正)가 병사 200명을 이끌고 아산에서 들어왔다. 야마무라의 일본군은 이후 서산과 태안, 해미 등 내포지방을 휩쓸며 수많은 동학농민군을 무참하게 살육했는데 심지어 총알을 아낀다는 이유로 개머리판으로 때려죽이기까지 했다.

현재 내포지방 주요 역사 유적에는 천주교의 성역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홍주읍성과 해미읍성에는 천주교와 관련된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고 천주교 입장을 반영하는 안내판이 게재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성역화 사업이 일방의 편향에 의한 역사 왜곡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갈등의 유발이라는 반사회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미읍성을 찾는 천주교 관련 방문객은 전체 중 10%를 넘지 않다는 것이 해당 공무원의 증언이었다. 그것도 특정한 시기에 집중해서 방문하는 형태에 지나지 않아 전체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관람에 방해를 받는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행정당국은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 또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